



16일 국회를 찾은 송하진 도지사가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내년도 전북도 중점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

도, 내년도 국가예산

'전북 몫 굳이기' 돌입

송하진 도지사, 박병석 국회의장·예결위 간사 등 찾아 릴레이 면담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16일 국회를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예산심사 관련 핵심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내년 국가예산 전북 몫 굳이기에 들어갔다.

15일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사가 마무리되고, 이번 주부터는 아직 미 완료된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와 예결위원회 소위심사가 동시에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하진 지사는 이번 주부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의 최대 고비가 시작될 것으로 판단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 기획재정부 최상대 예산실장과 강완구 사회예산심의관 등 국회 예산심사 핵심 인사들을 만나 분야별 핵심사업 예산편성을 강력 건의했다.

먼저, 송 지사는 이만희 국민의힘 예결위원회 간사를 찾아 '새만금 환경생

태용지 2단계 조성' 기본 및 실시계획비 58억 원과, '새만금신항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 사업비 10억 원, '농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설계 용역비 7억 원 등 5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회 간사에게는 탄소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사업인종 플랫폼 구축' 내년도 사업비 5억 원과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사업비 165억 원 등 5개 핵심사업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송 지사는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증액요청 예산이 최종 반영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증액 동의가 필수적임을 따라, 기획재정부 최상대 예산실장과 강완구 사회예산심의관을 만나 미래신산업, 새만금SOC, 문화관광, 환경 농생명 등 도정 주요 분야별 핵심사업 10여 건에 대한 국가적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편성을 건의했다.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내년도 전북도 중점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거듭 당부하며, 주요 사업 중 '전리유학 진흥원 건립' 사업과 '김제 읍지 특별관리지역 협업 축사 매입',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등 3개 핵심사업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한편, 도는 각 상임위 증액 의결액 삭감 방지를 위한 간담회 대응과 과소·미반영 사업들에 대한 증액 건의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오는 25일 제차 국회를 방문해 각 당 지도부와 기재부 핵심인사 면담을 추진하는 등, 2022년 국가예산이 의결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숨 가쁜 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식탁 위 농작물, 초미세플라스틱 복합 오염에 안전하지 않아

안전성평가연구소 합동 연구서

국내 공동 연구진 '안전성평가연구소(소소장 정은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윤석진), 포스텍(총장 김무환)'은 복합 오염된 토양 환경에서 초미세 플라스틱이 식물체 뿌리 내에 흡수되고, 미세화되는 현상을 최초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초미세플라스틱과 다른 오염물질(중금속)로 복합 오염된 환경의 경우, 식물 내부로 더욱 잘게 쪼개진 2차 미세플라스틱이 흡수될 수 있으며 또한, 복합 오염된 중금속의 흡수량이 단순 중금속 오염 대비 15%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다양한 오염물질로 복합 오염된 토양에서 경작된 농작물이 먹이사슬의 최상위인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결과를 보고했다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매우 크다.

현재 토양 환경에 방치된 각종 매립 폐기물과 농작 시 사용되는 멀칭필름(Mulching Film)은 연간 70만톤 이상이 사용되고 있으며, 기후 등에 의해 미세화돼 토양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토양에 흡수된 미세플라스틱은 자연적 분해가 어려워, 토양에 지속적으로 축적돼 생물체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미세플라스틱의 토양-식물 흡수와 미세화 현상 확인을 위해 카드뮴(Cd)

과 폴리스티렌(PS, polystyrene)의 나노입자로 복합 오염된 토양에서 식물에 기장(콩)을 생육했으며, 21일 된 뿌리와 잎의 횡단면 세포를 투과전자현미경을 통해 관찰했다.

그 결과, 세포 내 초미세플라스틱의 입자 크기는 평균 30nm로 확인됐으며, 이는 토양 내 최초로 주입한 입자 크기인 50nm보다 작으며, 입자가 거칠게 변화한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식물 대사 작용을 통해 나오는 저분자 유기산과 근권 주변 미생물 군집 활성 변화를 통해 초미세플라스틱이 단분자화(depolymerization)되거나 더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 조각으로 분해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주저자인 안전성평가연구소 환경독성영향연구센터 윤학원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초미세플라스틱 흡수와 오염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지는 전처리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작물 내 초미세플라스틱 흡수 및 전이량을 정확히 정량하는 방법 등이 고안되지 않아 이를 위한 연구를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연구는 영국왕립화학회(Royal Society of Chemistry) 소속 국제 SCI 저널 'Environmental Science: Nano'에 송인돼 지난 10월에 발표됐으며,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의회 의정포럼연구회 시민 심리회복 용역 결과보고

전주시의회 의정포럼연구회(회장 이윤자 의원)가 지난 15일 문화경제위원회실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주시민 심리회복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최종보고회는 지난달 중간보고회에서 논의한 의견을 수렴해 그간 추진한 용역에 대해 최종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는 시민의 우울, 불안감 낮은 경제수준, 불확실한 미래, 수입감소 가족과의 갈등 증가 등을 분석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주시민의 심리적 충격에 대한 영향과 회복방안을 모색하는 연구활동을 진행했다.

의정포럼연구회 회장인 이윤자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우울과 불안 무기력 등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시민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 및 건강한 시민들의 삶을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심리회복 방안을 지원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도의회 상임위 현장 의정활동

"축산 악취저감 위해 노력해달라"

농산경위, 김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등 방문

원주 수소충전소 찾아 향후 발전방안 논의도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가 16일 김제시 용지면 소재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및 신흥영농조합법인과 원주군 소재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제시 용지면 축산토지는 135농가, 138만5,000㎡·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1일 561톤의 가축분뇨가 발생되고 있다.

여기서 발생된 분뇨를 가축분뇨공공처리장과 신흥영농조합법인 등의 자원화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운영 현황을 청취한 나인권 의원(김제 2)은 "전북 혁신도시 건립, 급격한 도시 팽창 등이 이뤄지면서 악취에 의한 민원이 해결해야 할 사회적 이슈로 강조되고 있다"며 "우리 위원회에서 축산농가에 필요한 시설 등이 구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 축산농가도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국주영은 의원(전주 9)은 "축산 농가수의 감소와 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및 사료 가격, 제비용 상승 등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연중 발생 등으로 인해 축산업의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가 16일 김제시 용지면 소재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및 신흥영농조합법인과 원주군 소재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그동안 양적인 성장을 추구했던 축산업에서 환경을 고려하고,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축산업으로 변화해야 할 시기로 지역 축산농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농산경제위원회 의원들은 전북 1호로 설치된 전국 최대규모의 원주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철수 위원장(정읍 1)은 "전주·원주 수소 시험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원주 수소충전소 일원에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수소생산시설과 출하시설을 구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주 수소충

전소를 중심으로 생산·출하가 가능해짐에 따라, 도내 수소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지역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두세훈 의원(완주 2)은 "도내 수소차 사용자의 경제부담 완화 및 편의증진을 위해 수소충전요금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현재 구축 중인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현장의 집행을 계기로, 농산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이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축산업의 악취 해결 및 수소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동학농민혁명 정신 발전토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

문건위, 기념공원 조성 마무리 현장 찾아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16일 제386회 정례회 기간 중 정읍에 소재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문건위원들은 먼저, 전시관을 찾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기념공원이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전국 대표 기념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이어, 문건위원들은 기념공원 내



부 건축시설(전시 및 연구동, 연수동 등) 및 조경시설(동학농민혁명 의길, 기억의 들뜰, 추모공간 등)을 점검하며, 관련 시설들이 사업 기간 내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이정린 위원장(남원 1)은 "기념공원 조성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가치가 전 국민에게 확산되기를 기원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은 동학농민혁명 대국민 역사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 2012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정읍시 덕천면 319억 원을 들여 부지(30만 329.1㎡) 및 건축시설(3,055.09㎡)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준공 후 내년 5월 개관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입목 벌채 적합·환경성 고려

윤준병 의원, '벌채 타당성 평가법' 대표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11일, 벌채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입목벌채의 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벌채 타당성 평가를 산림관리 전문가가 실시하도록 하는 '벌채 타당성 평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림소유자에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목재수확을 위한 입목벌채를 하기 위해서는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규모 벌채로 인한 산림 황폐화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과도한 벌채로 인한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일부 산림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들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벌채를 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현재 목재수확 및 벌채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돼 있으나, 자신들의 편의에 따른 임의적 벌채와 인력·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한 형식적인 검토 등으로 인해 산림자원 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목재수확 및 벌채의 허가 신고 수리를 함께 있어 사전에 사업예정지를 답사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원칙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차질없이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림이 탄소의 흡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만큼, 입목벌채의 적합성과 환경성 등을 전문적·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벌채 타당성 평가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과도한 벌채로 인한 생태·경관·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개발청, 18~21일 '2021 트래블쇼' 참가

새만금개발청(청장 안충모)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제1전시관)에서 열리는 2021 트래블쇼에 참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관광 관련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관광 박람회로, 새만금개발청은 박람회 찾은 방문객에게 새만금 관광사업과 명소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행사장 내 홍보 전시관을 운영해 새만금 관광개발 투자유치 상담과 체험활동(새만금 레이스 게임), 특별 이벤트(새만금 팽파르끼, 퀴즈 등)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새만금 지역과 사업 현장 모습을 담은 새만금 사진전을 개최해 명품 관광도시 새만금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홍보광 문화·관광콘텐츠(TF) 팀장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변화하는 새만금을 누구나 즐기고 만끽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홍보와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